

10주년생일 기아차가 쏜다... K7 최고급인테리어 기본장착

X에디션, 퀵팅 나과 가죽시트 기본 등 12.3인치 클러스터, 양문형 암레스트 엔트리 제외 전 트림서 18인치 휠 선택



기아자동차가 2일 새롭게 선보인 K7 프리미어 X 에디션.

기아자동차가 준대형 세단 K7 탄생 10주년을 기념하는 K7 스페셜 트림을 출시했다.

기아차는 준대형 시장 고객들의 핵심 니즈를 적극 반영한 K7 프리미어 'X(엑스)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X는 10을 의미하는 로마 숫자에서 비롯됐다.

X 에디션은 2.5가솔린 전용으로, 기존 2.5가솔린 주력 노블레스 트림을 기반으로 최고급 트림인 시그니처에만 있던 퀵팅 나과 가죽시트, 스웨이드 내장

재를 기본으로 넣었다. K7 프리미어 2.5가솔린에서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옵션인 컴포트와 스타일의 핵심 품목인 ▲12.3인치 클러스터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운

전식 메모리 시트 ▲전동식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등도 기본으로 적용했다. 가격은 3505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기아차는 또 하이브리드차도 디자인

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엔트리를 제외한 K7 하이브리드 전 트림에서 18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차는 10주년을 기념해 선택형 보증연장 무상제공, 중고차 가격 보장, 신차 교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K7 프리미어 헤리티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K7을 오토할부로 출고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고객은 선택형 보증연장 혜택을 받는다.

일반부품 기준 기존 무상 보증기간 3년·6만km에 더해 1년·6만km(거리형), 2년·4만km(기본형), 3년·2만km(기간형) 가운데 선택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개인 출고고객에게는 국산 브랜드 최고 수준, 최장 기간 중고차

가격 보장 비율을 약속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아차 재구매를 전제로 1년 최대 77%, 2년 70%, 3년 64%, 4년 57%, 5년 50% 잔가를 보장한다. (LPi 제외)

K7 프리미어를 구매하고 1년 후 K5, 쏘렌토, 카니발 신형 모델로 바꿔 탈 수도 있다. 오토할부로 K7 프리미어를 구매하면 선수금 없이 1년간 이지만 내고 이용하다 1년 후 중고차 잔존가치 77%를 보장받고 남은 할부금을 낸 뒤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신형 모델 구매 시취등록세까지 지원(최대 200만 원)한다.

K7은 기아차 세단 브랜드인 'K시리즈'에서 처음으로 K를 적용한 모델로 2009년 11월 24일 출시 이래 올해 11월 6일 기준으로 국내 누적 35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로템 2층車, 호주 시작으로 납품 본격화 커져야 산다... 中 이어 日 조선도 덩치 키우기

현대로템이 제작 중인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의 초도 물량이 출고됐다.



현대로템이 출고한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

현대로템은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주 교통부에 납품될 2층 전동차 554량 중 초도분 20량이 창원공장에서 호주 시드니로 출고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출고된 차량은 10량 1편성 구성의 2개 편성이다.

이번에 출고된 시드니 2층 전동차는 현대로템이 지난 2016년과 올해 각각 512량과 42량을 수주한 사업의 초도 물량이다. 현대로템은 이 사업을 통해 호주 철도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현대로템이 납품 중인 시드니 2층 전동차는 호주 남동부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외선에서 운영될 차량으로 이번에 출고된 차량은 현지 시운전을 거쳐 영업운행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시드니 2층 전동차 납품이 본격화 되면서

마지막 차량 납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향후 현지에서의 추가 사업 공략 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는 운행최고속도 160km/h에 10량 1편성으로 구성된다. 현대로템이 지난 2016년 512량을 약 8894억원에 수주한 것에 이어 올해 추가 물량 42량을 약 826억원에 수주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日 1·2위 조선사 제휴... 韓에 도전장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중국에 이어 일본 조선사가 업무 제휴를 이루며 국내 조선업계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과 2위 업체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가 자본·업무 제휴에 합의했다. 제휴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한국과 중국에 뒤진 수주 실적 때문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일본은 그동안 중소조선사가 시장을 움직였다. 이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대형 선박 건조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조선사의 올해(1~10월) 선박 수주는 23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이마바리조선(525만CGT)과 JMU(216만CGT)의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량(남은 일감)을 합치면 741만CGT로 현대중공업(1114만CGT)을 바짝 뒤쫓게 된다.

지난해 이마바리조선의 조선 건조량은 449만t(톤)으로 일본 1위를 차지했다. JMU는 228만t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업체의 실적을 단순 합산하면 677만t이 된다. 이 경우 현대중공업(752만t)에 근접한다.

두 업체는 일본의 독점 규제와 관련한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휴를 추진한다. 출자 비율과 제휴 내용은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26일 최대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2위 중국선박중공(CSIC)이 합병해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이 공식 출범했다. 이번 합병으로 탄생한 CSG는 147개의 연구기관과 계열사, 상장사를 거느린 매머드급

조선소가 됐다. 직원 수만 31만명에 이른다. 총 자산규모는 7900억위안(약 1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하게 되면 일본과 중국이 이에 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풀어야 할 일은 많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카자흐스탄 등 여섯 곳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만 승인을 받았다. EU에서는 내년 상반기 결론 날 전망이다.

또 하나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노조와의 갈등이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두고 꾸준히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지난 5월에는 물적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이어오며 투쟁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새 집행부가 선출됐지만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현대글로벌비스 스타트업 돕는 '스마트 무브 챌린지'

플랫폼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현대글로벌비스가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과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스마트 무브 챌린지'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나 대학(원)생을 포함한 예비창업자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개인 또는 4명이 하로 팀을 꾸려 12월 31일까지 공모전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안서 접수를 완료하면 된다.

현대글로벌비스 종합물류연구소는 플랫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현대글로벌비스의 기존 5대 사업(물류·해운·자동차부품·중고차·트레이딩 등)을 포함해 현대차그룹의 사업 영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신사업 아이디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 연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중 서류심사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진행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효성중 'AMS', 한국전력 빅데이터와 기술력 강화 MOU

(자산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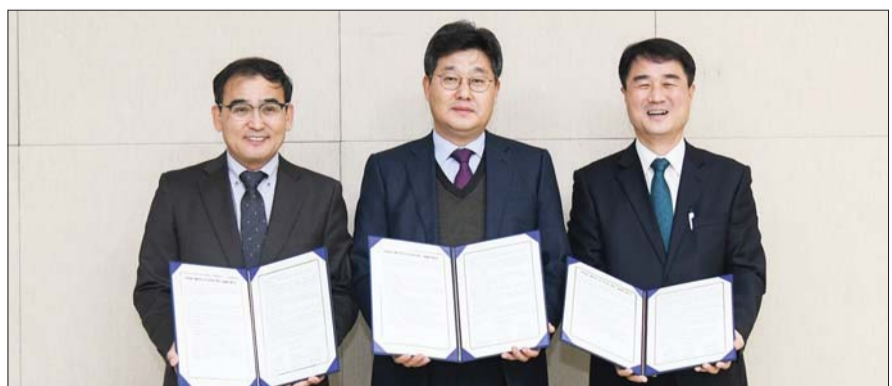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협력 AMS 세계시장, 매년 20%이상 성장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과 손잡고 차세대 전력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설비 예방진단 및 자산관리 시스템 분야의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자산관리시스템(AMS)과 한전이 보유한 전력 운용 빅데이터 분석 및 설비 유지보수 노하우를 더할 예정이다. 전력 설비 예방 진단 분야 기술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AMS는 전력 설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고장 등 이상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사전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최적의 유지보수를 가능케한다. 전력 설비 고장률을 최대 80%까지



효성중공업은 한국전력공사와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전력공사 한상규 디지털변환처장, 효성중공업 유호재 전무, 한국전력공사 박상서 송변전운영처장 /효성중공업

낮출 수 있고 고장 복구와 유지보수 비용도 30% 이상 절감 가능하다. 무인 스마트 변전소도 운영할 수 있다.

AMS는 세계 시장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며 2023년 3조5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섰으며, SK에너지와 포스

코 포함제철 등에 적용했다. 지난 10월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AMOUR'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력이 보유한 전력설비와 광범위한 운영 데이터 사례 등을 적극 적용해 시스템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